

장성 '전남체전' 내일 개막... 스포츠로 하나되는 '전남'



김한중 장성군수가 연설을 통해 전남체전 성공 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장성군 제공)

21일까지 4일간...공설운동장서 개최식 김연자 등 가수 총출동 23개 종목 2만명 참여...체전네트·서예 체험 등 볼거리·체험 풍성

장성군이 최초로 개최하는 전라남도체육대회(이하 전남체전)가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장성군은 전남체전 개막에 앞서 17일 백암산 국기단에서 제64회 전남체전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 행사가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기단은 조선시대부터 유교식 제례를 지냈던 유서 깊은 장소로 전남체전 성공 개최와 도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제전례를 봉행한다. 주선녀가 채화경에서 채화한 성화는 첫 주자인 윤시석 장성군체육회장에 전달된다. 성화 봉송에는 총 222명의 주자들이 참여한다. 장성만의 지역 특색을 살려 '장성호 수상 봉송', '필암서원 유립 봉송', '상무대 영내 봉송' 등이 이뤄진다.

다. 출정 봉송은 18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김한중 장성군수가 출정 주자에게 성화를 전달하면 6팀의 주자들이 황룡강 꽃길과 용작교 구간을 지나 공설운동장 옐로우시티스타디움까지 달린다. 개최식은 이날 오후 4시30분 공설운동장 스타디움에서 시작되며 가야금 병창과 대금 연주 등이 식전 공연으로 펼쳐진다. 최종 성화 점화는 장성 출신의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이 맡는다. 개최식이 끝나면 김연자, 김태연, 린, 손호영·김태우, 정동원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가 총출동하는 축하공연이 무대를 뜨겁게 달군다. 공연 이후에는 '성장장성'을 주제로 한 '멀티미

디어 드론쇼'가 창공에 펼쳐진다.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재미있는 기념사진을 남길 수 있는 인공지능(AI) 체전네트, 서예 체험, 편백제품 만들기, 장성군 친환경 농특산물 홍보관 등이 운영된다. 전남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임원·관람객 규모는 총 2만여명으로 예상된다. 23개 종목 가운데 볼링(화순), 사격(나주)을 제외한 전 종목이 장성에서 경기를 치른다. 폐회식은 21일 오후 3시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다. 종합 시상식에 이어 차기 개최지 대회기 전달, 성화 소화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장성군 최초로 열리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남의 도약에 기여하겠다"면서 "체전으로 하나되는 화합의 스포츠 축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 홍길동테마파크 '꿀잼 공간' 새 단장

12억 들여 리뉴얼...복합 놀이시설·물놀이장·체험 시설 등

장성 홍길동테마파크가 꿀잼 공간으로 새 단장을 한다. 장성군은 홍길동테마파크가 전남도의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예산을 테마파크 리뉴얼에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복합 놀이시설, 물놀이장, 체험형 시설 등 관광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를 중점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청소년부터 장년,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체계적인 콘텐츠 유지·관리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장성군 홍길동테마파크는 역사 속 실존 인물인 '홍길동'의 이야기를 주제로 조성한 '테마형 관광지'다. 홍길동 생가, 산채 체험장, 야영장을 비롯해 숙박시설로 정백한옥을 갖추고 있다. 축령산의 맑은 공기와 탁 트인 야외공간이 매력적이지만 2004년 개관 이후 시설 노후화로 새 단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홍길동테마파크 재생 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관광지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축제 만났다

장흥군 글로벌 축제 교류단 방콕 시암스퀘어 광장서 교류행사 물뿌림 퍼포먼스 등 공식 행사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축제가 물을 매개로 만났다.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 교류단이 최근 태국 방콕 시암스퀘어 광장에서 송크란 축제와 공식 교류행사를 가졌다. 공식행사에는 장흥 교류단의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이 참석하고 태국은 태국관광청 나트 크룽순국장 및 부국장, 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양측은 송크란 축제가 갖는 복을 빌고 액운을 씻어내는 손씻음 퍼포먼스와 장흥 물축제의 물의 의미인 장수, 건강, 치유를 나타내는 편백수 견배와 물뿌림 퍼포먼스로 공식 행사를 열었다. 정남진 장흥 물축제 in 송크란 흥보 부스에서는 K-문화에 관심이 높은 현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K-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했다. 이번 공식방문은 지난해 6월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에서 장흥군-태국정부 관광청-전라남도가 맺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4년 태국 송크란 축제 관계자가 장흥 물축제를 방문한 것에 대한 공식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는 물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 양측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자는 목표 아래 업무협업을 추진



김성 장흥군수 등 관계자들이 태국 방콕 시암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송크란 축제를 체험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하고 있다. 장흥 물축제의 물은 치유, 건강, 장수를 의미하며, 태국 송크란 축제의 물은 액운을 씻어내고 복을 받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공식 방문행사를 통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K-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기억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9일간 전남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 독거 어르신에 무료 세탁 서비스

주민자치회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진행...수거·배달 일체



함평군 함평읍 주민자치회가 운영하는 무료 빨래방.

함평군은 함평읍 주민자치회가 55개 지역 경로당과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남도와 함평군이 지원하는 '고향사랑 기금사업'으로 진행하며, 마을 이장과 지역 복지단체가 함께 한다.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까지 할 예정이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진 함평읍 주민자치회장은 "무료 빨래방 사

업은 이불 세탁 등 일상에서 꼭 필요하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이번 서비스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화자 함평읍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생활 편의를 넘어 지역 주민 간 유대감을 강화하고 복지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시, 335개 마을에 '공동 급식' 지원

7억3000만원 투입...농번기 중 연간 25일 이내

나주시는 올해 마을공동급식을 신청한 335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급식비용을 지원한다. 당초 올해 사업량은 마을 251곳이었으나 신청이 폭증하면서 마을 간 형평성과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사업을 신청한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공동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사업비 7억3000만원을 투입해 15명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에 농번기 중 연간 25일 이내 공동급식 비용을 지원한다. 자체 공동급식을 신청한 마을 177곳에 부식비와 도우미 인건비를 나머지 마을 158곳엔 도시락 및 반찬 배달 비용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자체공동급식의 경우 연간 지원 일수(24일)를 기준으로 급식 인원에 따라 마을 한 곳에 최대

232만8000원을 지원한다. 도시락 배달은 연간 19일을 지원하는 대신 지난 해부터 끼니 당 도시락 단가를 5500원으로 상향해 지원하고 있으며, 급식 인원에 따라 마을 한 곳에 최대 209만원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운병대 나주시장은 "올해 마을공동급식은 농업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신청한 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며 "분주한 영농철 일손을 덜면서 혼자 사시거나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에게 든든한 한 끼를 챙기는 마을 공동급식이 마을 화합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담양군, 여름철 토마토빨나방 유입 경고

초기 예찰·적기 방제 홍보

담양군이 토마토 재배 농가에 토마토빨나방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방제에 힘써달라며 예방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토마토빨나방은 가지과 식물에 선호하는 해충으로, 토마토에 대한 기주 선호도가 크고 알-유충(1-4령)-번데기-성충의 발육단계를 거친다. 기온 27도 조건에서 1세대 발육 기간이 평균 24일부터 38일 소요되며, 1년에 8-12세대가 발생할 정도로 생육이 왕성하다. 특히 고온기인 여름철에 발생 밀도가 증가할 수 있어 재배 농가의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피해 양상을 보면 유충이 식물체 조직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내부 조직을 넓게 갉아 먹는다. 어린 유충은 잎-줄기-꽃을 가해하고 다 자란 유충은 열매에까지 파고 들어가 피해를 준다. 또 크기도 유충은 0.9-7.5mm, 성충은 6-7mm로 매우



외래 해충 토마토빨나방. 작아 시설하우스 방충망으로는 유입을 차단하기 어렵다. 토마토빨나방 예찰을 위해선 성페로몬 트랩을 활용하면 발생 여부를 상시 관찰할 수 있다. 해충 발생 전 친환경 농가에서는 식물성 유기농업 자재나 고미교란제를 이용해 방제할 수 있으나, 일반 농가에서는 농약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농약을 구매해 주기적으로 살포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

나주시, 시민정원사 양성 6월 21일까지 총 10주간

나주시가 혁신도시 빛가람 호수공원에서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 '빛가람 호수공원, 나의 정원'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도시녹화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것이다. 동신대 평생교육원과 산림조경학과가 위탁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6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씩 총 10주간 진행된다. 빛가람 전망대 1층 다목적실과 빛가람 호수공원 일대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정원 수목과 초본에 대한 기본 이론 교육과 실습 중심의 정원 조성 활동, 참여형 토론 수업 등 이론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된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민에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화순문화관광재단 '가가호호' 인문학 요가·목공 체험 등 7가지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5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가가호호'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가가호호' 공모 사업은 가족 간 소통 활성화와 지역·세대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한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지난해 '꿈의 무용단' 공모사업에 전남지역 최초 거점기관으로 선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무용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가족 단위로 대상을 넓혀 인문학 요가,

목공 체험 등 7가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 오는 5월31일 문화관광재단이 진행하는 '화순남산공원 로컬립 프로젝트', '구석구석 문화 배움'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화순군문화관광재단 구충현 대표이사는 "지역에 가족 단위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도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